

'살아보니 사람·완주·예술' 독서문화 활발

완주군, 우수독서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살아보니' 주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완주군이 '2024년 우수독서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서 '살아보니'를 주제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수독서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사)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후원하는 공모사업이다.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살아보니' 주제는 2024년 완주군 올해의 책인 <살아보니, 지능>을 연계한 것으로 '살아보니, 사람', '살아보니, 완주', '살아보니,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살아보니, 사람'을 주제로 <잠재희망은 귀여운 할머니>의 하정 작가 초청 강연을 8월 10일 진행한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당신이 잘되면 좋겠습니다>, <대리사회> 등의 저서와 방송 <유 퀴즈 온더블록>에 출연한 김민석 작가 초청 강연이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살아보니, 완주'를 주제로 전 한양대 성악과 교수로 봉동읍에 동지를 둔 고성현 성악가를 초청해 '고성현의 음악 이야기'를 8월 22일 진행한다.

이어 8월 24일에는 완주군 출신으로 국립암센터 원장이자 시인인 서흥관 원장을 초청한다. 9월 7일에는 소양면에 10년째 거주하며 집



완주군이 '2024년 우수독서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서 '살아보니'를 주제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민석 작가 초청 강연 사진)

필 활동 중인 한국문단의 거장 윤용길 소설가와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살아보니, 예술'은 삼봉LH 1단지에 위치한 너나들이작은도서관에서 지난 2일 '책속 주인공 공 키링 만들기'를 진행했으며, 16일에는 '천경자 화백의 삶과 나' 강연과 체험프로그램이

열렸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우수독서프로그램은 책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적 영역을 넓혀가는 시간이다"며 관심을 당부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영어로 듣는 국악동화 '숲속음악대 덩따쿵'

국립민속국악원, 국악기 체험 등 20일 진행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20일 오후 3시, 국악원 예원당에서 국악기 체험과 영어로 노래하며 듣는 국악동화 '숲속음악대 덩따쿵'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작품으로, 2018년 초연 이후 전국 각지의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숲속음악대 덩따쿵은 2024년도 재외한

국문화원 순회사업에 선정되어, 오는 8월 시드니 한국문화원과 필리핀 한국문화원의 초청을 받았다.

특히, 이날부터 SNS 구독 및 스탬프 이벤트(선착순 100명)가 시작된다. SNS 구독 시 기념 볼펜을 제공하며, 공연 관람 횟수에 따라 현장에서 스탬프를 적립해 기념 텀블러 및 풀딩가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김중현 원장은 "어린이들이 영어로 국악기와



판소리, 동요 등을 듣고 율동을 따라 하며 국악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기를 기대한다"며, "이 공연을 통해 한국 어린이 국악이 한류문화로 선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문화관광재단, '고창 그린 발자국 여행 캠페인' 협력 사업체 추가 모집

고창문화관광재단(이사장 심덕섭)은 친환경 관광을 위한 '2024 고창 그린 발자국 여행 캠페인' 협력 사업체를 2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고창 그린 발자국 여행' 사업은 생물권보전지역 고창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친환경 관광 미션을 인증하면 상품을 지급하는 친환경 관광 캠페인이다.

특히, 공동 미션으로 병뚜껑 모으기를 운영하

여 연말에 병뚜껑이 필요한 친환경 단체 및 업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재단은 본격적인 캠페인 운영 전에 안내 협력 사업체를 모집하여 전문가 서면 심사 후 선 발하며, 협력 사업체에게 병뚜껑 수거함과 재단 SNS를 통해 홍보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안종선 상임이사는 "이번

사업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전환 추진에 따른 고창 내 친환경 관광 인식 개선 유도 캠페인이다"며 "재단과 함께 지속 가능한 고창 관광을 위해 힘써줄 관련 사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고창 그린 발자국 여행' 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협력 사업체 신청은 고창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고창문화관광재단 관광팀(070-4914-7200)으로 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트래블 콘서트 '부다페스트의 밤'

군산예술의전당서 31일 바이올린·피아노 아름다운 선율 선사

7월 31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동유럽의 열정을 담은 7월 트래블 콘서트 '부다페스트의 밤'이 개최된다.

트래블 콘서트 3탄 '부다페스트의 밤'은 동유럽 중 가장 아름다운 나라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음악과 여행으로 함께 즐기는 이색 콘서트다.

여행 가이드이자 피아니스트인 정환호의 친절한 안내로 막을 여는 이번 공연은 집시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리는 K&N의 연주로 이국적인 정취가 가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곡리스트로는 드라마 '포 오해영' OST, 파블로 사라스테의 '지코이네르바이젠', 비토리오 몬티의 '차르다시' 등 국내외의 다채로운 음악이 선정되어 흥겨움을 더해줄 예정이다.

예술의전당 홍양숙 과장은 "관객들이 헝가리의 열정과 부다페스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곡들로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될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무대의 생동감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아름다운 부다페스트의 야경을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7월 트래블콘서트 '부다페스트의 밤'은 전석 무료로 운영되며 티켓링크에서 7월 17일부터 사전예약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gunsan.go.kr/a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문화원은 시민을 대상으로 국악 교육 프로그램 '한무릎 국악'을 운영하고 있다.

'한무릎 국악' 전통예술 멋 알린다

익산문화원, 태평소·해금·대금·피리 국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가 익산문화원과 함께 국악 교육을 진행해 전통예술교육 활성화에 나섰다.

익산문화원(원장 이재호)은 시민을 대상으로 국악 교육 프로그램 '한무릎 국악'을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한무릎 국악'은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공부한다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입문자를 위한 맞춤형 집중지도와 폭넓은 연주 경험을 통해 전문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교육 과목은 태평소와 해금, 대금, 피리이며

전문 강사진을 통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목표 의식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연말에 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문화원(063-835-012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익산문화원 관계자는 "지역사회 국악 문화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기 때문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